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 10 15 등록번호 (사)과-08호·발간·비영리

東友會報

1992年(檀紀4325年)11月30日 第160號(1)

哲正魯 在秀榮 鄭張金 發行·집인·편집인·쇄인

會同總校東國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층2호
전화: 733-3991~3
FAX: 733-3992

우편대체 012328-31-0525677
은행지로번호 7500891

저무는 한해, 밝아오는 東國



東國人的 밤

12월 29일
엠배서더

또 한해가 저문다. 이맘때면 늘상 多事多難이나 送舊迎新이란 말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뛰어온 것을 나타내는 것일게다. 壬申年 한해도 10만 東國人 모두 바쁘게 뛰어온 한해였을 것이고 本會는 本會대로 母校는 母校대로 열심히 뛰어온 한해였다.

특히 本會로서는 사상처음으로 임대가 아닌 분양사무실의 시대를 바로 이곳 백상빌딩 3층에서 열어 癸酉年의 새해에는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해가 저무는 연말, 10萬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東國人的 밤이 오는 12월 29일 엠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 룸에서 열려 壬申年 대미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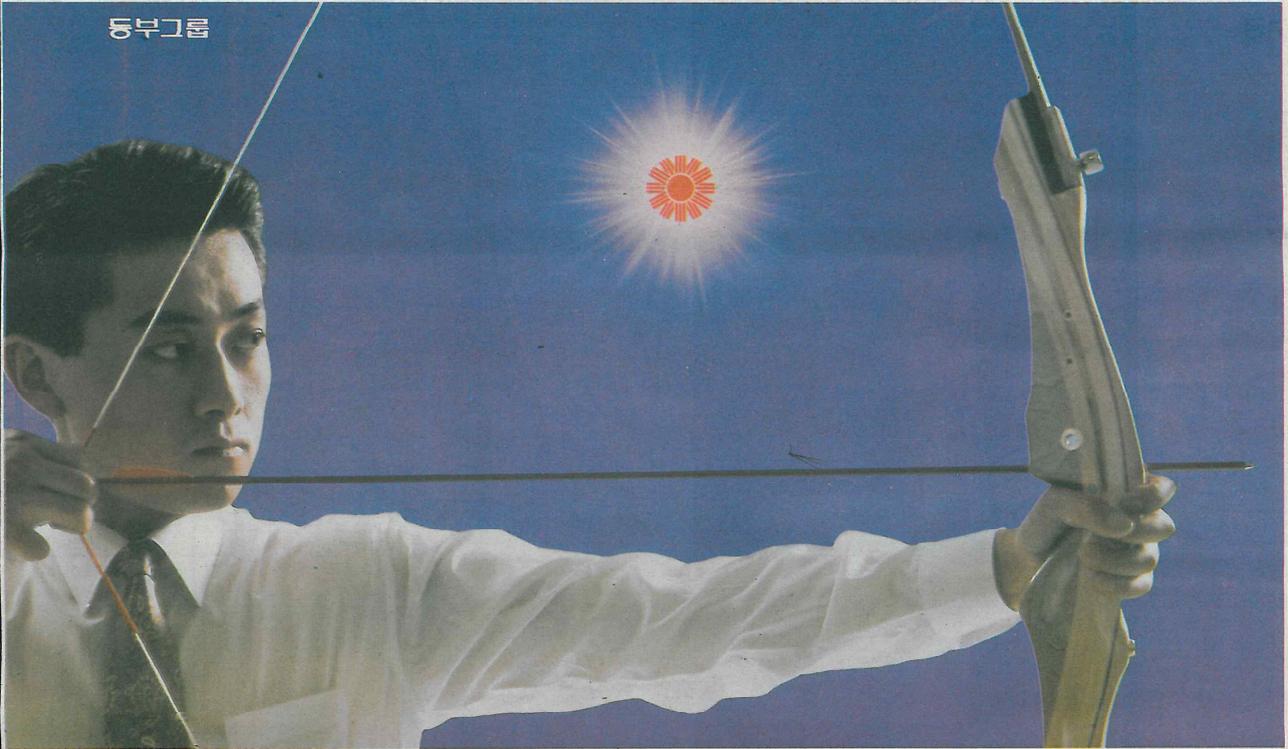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어 東國의 명예를 빛낸 국회의원동문들과 정계, 재계, 금융계의 동문들로부터 백상빌딩의 입주금으로 1만원의 기증을 보내주시신 원로선배와 신인회원까지 모두 참석하여 東國 1백주년 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다짐의 場, 만남의 場이 되길 바라며 癸酉年 새해 새모습으로 거듭나길 다짐한다.

지면안내

- 1면 화보
- 3면 본회기사
- 4면 지부지회소식
- 5면 탐방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
- 6면 동문동정
- 7면 동문인터뷰(이준구, 이태수)
- 8면 모교소식
- 9면 나의 학창시절(김홍우)
- 10면 화제의 동국인(최인규)

고객의 마음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동부그룹



투자세계의 밝은 길 동부증권이 있습니다



● 본사 528 5000 ● 영업부 561 6000 ● 을지로지점 753 9000 ● 압구정지점 515 6100 ● 양재지점 589 0600 ● 영등포지점 636 6000
 ● 잠실지점 419 6200 ● 부산지점 515 6200 ● 대구지점 256 2700 ● 광주지점 225 6900 ● 대전 지점 522 7771

12월 29일에 만납시다

東國文化大賞 겸한 東國人的밤 열려

「제21회 東國人的 밤」이 오는 12월29일 오후6시30분 장충동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해를 거듭해 올수록 경향각지의 많은 동문이 참석해 10萬 동국인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고 내일의 영광을 다짐하며 모교애와 동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온 큰잔치인 東國人的 밤을 올해동안 사회각계에서 활약, 동국의 명예를 펼친 동

문들의 축하연과 함께 6번째 東國文化大賞의 시상식도 겸하게 된다.

이번 東國人的 밤은 鄭在植회장을 비롯해 李衍澤노동부장관, 金在基주백은행장, 文泰植수석부회장을 정계, 금융계, 개계의 인사들 배반성향한 선배동문들로 부터 신인 동문까지 명실상부한 대등단결의 새場이 될것이다.

이를 위해 本會사무국은 이

미 전국2백50여 직장동우회등 각급단위동창회와 임원진들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찬 금품을 접수받기 시작했고 일반회원에게 개별공문을 발송치않고 회보를 통해 일괄통지키로 결정했다.

한 해의 마지막을 10만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일 것을 기약하는 동국인의 밤은 우선 사무국의 치밀한 기획에 앞서 동문개인의 열빈 참여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本會, 동문회期 전달

原州支會 모임에

원주지역동무회(회장=김병우·69년생·상시대 기획관리실장)는 지난23일 삼여가에서 회인 40여명이 정기 월례모임을 갖고 同會의 활성화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本會 장수정사사무국장이 참석, 원주지회의 회기를 직접전달해 원주지역 동문의 동문애를 고취시켰고 참석자들은 밤늦게 까지 지난 얘기들로 뜻을 괴유했다.

在濠州 동문 모임活潑

木會선골프 우승컵 寄贈

在 8주동문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전국체전 당시 호주선수단을 이끌고 訪韓했던 이종철(69학학) 동문이 따르면 50여명의 회원이 격월간격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9월에는 양문호(71식공) 동문 자택서 부부동반으로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8월9일 첫 모임을 가진 골프동호인회는 9월5일 Concord Massey Park에서 2차모임을 가졌다.

한편 同會간사인 양장운(79농학) 동문을 Link Telecommunications사의 이동통신기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했으며 강정오(80선학) 동문은 Puchbowl로 사찰(호주 판우)을 이천하여 이 전법회를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同會에서는 總同窓會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중이며 단체회비의 저극저 납부도 약속했다.

本會에서는 호주동문회장 김홍규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모교총장과 本會 정재철회장의 골프우승컵을 지원했다.

오류동문의 연락처는 1/130 Burns Bay Rd LANE COVE

2066 K·S·Lee(이경수)

경영과 ROTC모임

경영학과ROTC동문회(회장=조태호·63·국방대학원입교)는 지난7일 명동세종호텔 2층 소나무홀에서 회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번째 모임을 갖고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는 한편 同會의 발전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했다.

카드대금 獎學金으로 적립

15일부터 BC장학카드 10萬동문대상

本會는 BC카드(주)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시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인 「BC장학카드」의 발행에 적극 협조기로 제휴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BC장학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BC장학카드란 국내 우수대학중 BC카드사와 협의한 대학의 졸업생중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장학카드를 발급받고 이 용금액의 0.1%를 1년간 적립, 회원의 모교에 전달하는 공익 신용카드이다.

현재 서울대, 고려대등 8개 대학에서 실시중인 BC장학카드는 모교의 경우 전출입생이 대상이 되며 신규가입시는 신

청서에 학교명, 입학 졸업년도를 기재하여 해당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고 현재 BC카드를 소유한 동문은 해당은행 영업점에 전화나 서면으로 갱신·교체하면 된다.

장학카드는 추가부담없이 단지 동문들이 이용한 카드이 용금의 0.1%를 저리하여 모교 측에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모교의 심볼과 동창회 명칭을 인쇄하는등 프로그램의 개발여에 따라 많은 부가기능 서비스를 추진중으로 알려졌다. 이미 외국의 大學에서는 많은 카드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사회를 끝내고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회원명부 발간 自祝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 이사회도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이하 지대원)는 지난 10월24일 경주시 보문고수부지에서 92년도 2차 이사회및 회원명부 발간기념회를 갖고 會의 결속과 發展을 다짐했다.

대하기마다 경주 캠퍼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꾸준한 활동을 보인 地大院동창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두철(90) 회장을 비롯한 임원 1백여명이 참석해 회원명부 발간을 자축하는 한편 本會의 발전을 위한 의인으로 화비지진남부, 명부발간에 따른 광고 협찬

금, 임원 임기및 추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각지역별, 기수별 지원대책과 함께 本大生 취업추진위를 결성하여 학생의 취업에 일조키로 다짐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동문들은 고수부지라는 야외공간에서 오랫동안 자리한 동문들끼리 삼삼오오 술잔을 기울이며 동문애를 분출하는 한편 저마다 本會의 발전을 위해 결속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분당병원건립찬조 내기로

한의대동창회 새會長에 라경찬同門

한의과대학동창회는 지난15일 모교 경주캠퍼스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2층 도서실에서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5대회장에 라경찬(86·한의원장) 동문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同會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동안 적임한 분당한방병원건립기부금 4백만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모교의 분당병원건설위원회에 기부키로 했다.

또한 전임 이사장최희창과 신임 라경찬회장의 인수인계식을 오는 12월5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갖기로 하고 임원진 구성을 신임회장에 일임키로 했다.

이날 총회는 분당병원건립

에 一助하는 한의동문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한편 오랫동안 자리한 전국각지의 동문들끼리 정담을 나누었다.

大田지역 體育大會

지난 10월 25일

대전·충남지회(회장=김기종·53경제)는 지난10월25일 대전중학교 운동장에서 「제9회 동국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문간의 우의를 다졌다.

회장이상, 경기진행, 임원소개, 시상식으로 이어진 이날 체육대회는 모처럼 야외에서 맘을 풀리며 동문애를 기르는 호뜻한 행사였으며 경기후 진행된 퍼포먼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행운상품 협조 안내

東國人的 밤은 同門여러분이 스스로 참여하는 行事입니다.

東國인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 기쁨을 모두가 나누어 가지기 위해 「東國人的 밤 行事 협찬금 및 행운상품」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협찬내역: 행사상품이나 협찬금
 2. 협찬방법: 本會를 방문하시거나 지로를 통한 입금 (本會로 전화연락주시면 방문수납하겠음)
- ※열화와 같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10萬 東國인이 한 자리에

제 21회 東國人的 밤이 열립니다.

10萬 東國인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東國의 榮光을 다짐하는 「제 21회 東國人的 밤」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行事에서는 정계, 재계, 금융계의 중진들과 각계각층의 많은 동문들이 대거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축제의 場이요, 화합의 場이 될 것입니다.

-아 래-

1. 행사일시: 1992년 12월 29일(화) 오후 6시30분
2. 행사장소: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2층 그랜드 볼룸
3. 회 비: 2만원

※기타 의문사항은 本會事務局(Tel 733-39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發展基金 2천만원 募金키로

ROTC동문운영위 1期, 6期會는 당일 납부



▲6期 후원표회장이 분담금을 장수정 사무국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ROTC총동문회 (회장=원용선·63·영문·남양전기(주) 대표)는 지난 25일 강남구의 만리장성에서 「회장단및 운영위원회 모임」을 갖고 기금 2천만원을 모집키로 했다.

개회, 국민의뢰, 회장인사, 경과및 동정보고, 기별인사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同會의 發展의 성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참석자들은 우선 2천만원의 기금을 모금키로 하고 期別로 분담금을 확정했다.

1기~3기 3백만원씩 9백만원, 4기~7기 150만원씩 6백만원, 8기~15기 80만원씩 640만원, 16기~19기 50만원씩 200만원, 20기~28기 30만

원씩 370만원등 총2천610만원의 기금을 모금키로 했는데 1기회 (회장=정대진·63남)와 6기회 (회장=홍원표·68지)는 추석에서 300만원과 150만원의 기금을 일시불로 납부, 모임을 보냈다.

同會는 분담금을 기별로 모금하여 ROTC총동문회에 납부키로 했는데 참석자들은 저마다 건배를 제의하는등 선후배간의 정을 두텁게 했다.

佛書 3백권 寄贈

故이재열씨 유족

故이재열(재야불교 사학자) 선생의 유가족은 지난달 27일

자필유고 2천여장을 포함한 개인수장 불교관계서적 3백여권을 모교 중앙도서관(관장=홍영백·사학) 측에 기증했다.

지난 1946년 「조선불교사의 연구」를 발행하는등 일생을 보조과사 지냈을 조종로 하는 조계종의 종통및 역사연구에 몸담은 고인의 유고에 따라 이번 기증은 「청허집」 「석씨원류」 등의 고서류를 포함한 불교관계서적 3백여권 등이다.

2학기 獎學金 지급

경영학과 동문회

모교 경영학과 동문회 (회장=김진문·71·신성약품(주) 대표이사)는 재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동문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23일 정오 학교장 차승련교수 연구실에서 재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은 이봉진(4), 신보결(3), 이수민(아3) 군 등이다. 경영학과 동문회는 매학기마다 학 재학생중 우수학생 3명을 선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선후배 간담회 개최

조경학과 동창회

조경학과 동창회 (회장=오익영·80조경·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 10월10·11일 양일간 경주 불국사 국민호텔에서 「선·후배 간담회」를 갖고 동고문특유의 우의를 굳게 했다.

졸업후 각계에서 활약하는 선배와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첫날 만남의 시간, 주제별로 조별 간담회에 이어서 「수경관 연출」에 관한 특강과 게임으로 선·후배간의 정을 북돋워 조경인 특유의 단합을 과시했다.



▲사진은 축하케익을 잘단하는 장면

警行科 30주년 기념식

지난 21일 有功同門에 感謝

경찰행정학과 동문회 (회장=김성수·68)는 지난 21일 KOEX대연회장에서 민병천 모교총장을 비롯한 교수, 졸업동문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행정학과 창립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개회사, 국민의례, 묵념, 축하케익절단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경찰행정학을 강의한 퇴직원로 교수인 서기영, 임규순, 백원준(백교수는 일본체류 관계로 不參) 교수등에 대해 사은품을 증정하는 한편 경찰행정학과

의 현교수진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과학철 30주년을 이어오는 동안 동문회발전에 공이 큰 유공동문에 대한 공로·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한층 더 발전된 경찰행정학과의 위상을 정립키로 다짐했으며, 대형기념앨범과 경향노점, 동문수첩 1부씩의 기념품을 나뉘었으며 연회가 끝난뒤 초청기수 공연과 장기 자랑으로 흥을 돋웠다.

嶺南지역 체육대회 盛了

고른 성적낸 浦項支會 우수

「제9회 영남지역 체육대회」가 지난 1일 모교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주최자인 재직동문회를 비롯한 경주, 대구, 포항동지의 동문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각 경기부문에서 골고루 성적을 낸 포항지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배구와 후호, 럭비공 굴리기와 줄다리기 끝난후 연회로 이어진 이날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모처럼 재학시의 반우기로 돌아가 매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本會 張季正사무국장이 5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 행사분위기를 한껏 북돋웠으며 각지부에서

도 저마다 준비해 온 음식들 서로 권하는 보기좋은 정경은 연출했다.

同門 4名 최종합격

司試 및 行試

제34회 사립고시에서 송인만(85·법)과 김재원(86·법)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행정고시에서는 이호중(89·행정) 동문과 김정옥(90·영문) 동문이 최종합격했으며 군법무관시험에서는 김정주(86·법) 동문이 합격했다.

加, 벤쿠버 동문회 발족

李濟根 동문 준비작업 착수



캐나다의 서부 항구 도시인 벤쿠버에 거주하는 李濟根 동문(61경제·사

진)이 벤쿠버동문회결성을 위해 동문시추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李동문은 사업상 북미의 여러도시를 순회하면서 대 해당동창모임과는 달리 캐나다 벤쿠버지역에는 동창모임이 없어 지역신문광

고등을 통해 동창들을 찾고있는 것이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최근 귀국한 李동문은 本會를 방문하여 會의 결성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本報에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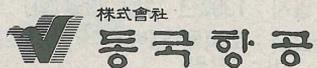
李 동문의 연락처는 8136RIEL PL VANCOUVER B·C CANADA V5S 4R3 전화번호는 (604) 436-0133번이다.

제 21회 東國人的 飯을 축하합니다.

“해외여행의 동반자”

동국인의 일이라면 제 일처럼 뛰어가겠습니다.

저희 동국항공 가족은 세심한 정성, 수준높은 서비스로 기본분은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국항공을 선택하신 귀하에게 해외여행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株式會社

동국항공

대표이사 신익현(70경영)

대표전화 (02) 725-4444

언제라도 전화해주시시오.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동국항공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해외여행 서비스/ 해외출장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발권업무/ 여권 및 비자 수수 대행/ 해외여행정보 상담안내



創立은 끝씨, 의욕은 先頭

地域開發大學院同窓會

「우리가 남이가(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쌀쌀한 가을바람이 스치던 지난 10월24일 오후 경주 보문고수부지에서 때아니게 들린 이 소리는 본會산하 250여 支部支會중 막내로 출범한 지역개발대학원동문회(이하 지대원)의 특성을 한마당 표현한 건배 구호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不變의 진리를 꿰뚫듯 東國을 울타리 삼아 한가죽처럼 두터운 동문애를 발휘하는 것이 同會의 강점이자 장점이다.

地大院은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및 연관분야 학문과 그 응용방법의 교수및 연구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해 설립되었다.

88년11월 문교부의 설립인

가 이후 89년 개발행정학과에 3개전공(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을 두고 신입생을 모집, 현재에 이르러 있으며 6기 졸업생까지 4백여명의 동문을 두고 있다.

地大院동창회가 정식으로 발족한 것은 지난해 12월5일이다.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1백1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총회는 그동안 개별적 소모임을 탈피해 지대원 동문들의 힘을 결집하는 뜻깊은 야기였고 창립때까지 술의 결성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했던 이두철(1기·삼창기업(주) 대표이사) 동문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同會의 발족은 2期生이 졸업한 후 사기빌 소모임에서 그치던 것을 대학원 전체모임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3期가 졸업한 91년 정식발의된 것이다.

同會의 발족에 가장 큰 공

헌은 아무래도 초대회장으로 있는 이두철회장인 듯.

경남 울산에서 세속세이븐야 설치및 시운전을 포함한 원지력발전소 계획제어 설비기기 보수업체인 삼창기업을 운영하는 이두철회장은 사업상의 바쁜일정에도 만사를 제치고 동창회 결성에 진력하는 열성을 보여왔다.

그밖에 많은 동문들의 협조로 결성되었지만 특히 당시 재학생으로 큰 활약을 한 서상노(4기) 김무용(5기) 이도형(6기) 동문의 노력이 감사하다고李회장이 귀뜸한다.

本會가 支會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재학생에 대한 배려가 아간가 싶다.

지난10월24일 이사회에서 결성된 本大生취업추진위원회(회장=금병소·세원산업 대표)가 바로 그것이다.

후배를 아끼는 선배의 마을이야 어찌 차이가 날 수 있겠나만은 개인적 차원의 취업대

개발대학원내동창회 사무실을 설치하는 한편 11月中 회보창간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지대원동창회의 동창회관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93회계년도부



▲회원명부 발간을 축하하는 장면. 원내는 이두철회장(주) 권순익(3기·세화학원장) 서상노(4기·한미주유소) 윤병환(4기) 김무용(5기·버

그에 따른 일부만의 동창모임은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이라는 지역개발대학원의 교육지표가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처럼 지역개발대학원 동문간의 東國사랑, 地域사랑이 가슴깊이 자리잡고 있는란 上記한 장애쯤은 아무것도 아닌 杞憂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地大院同窓會 임원명단>

▲고문=박재우(1기·경주 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원(1기·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회장=이두철(1기·삼창기업(주) 대표)

▲부회장=공재홍(1기·공일산업), 김경오(2기·경북도 의원) 금병소(2기·세원산업

東友漫評 鄭雲耕

92 東國인의 밤



友誼, 길수록 敦篤

진한 東國愛, 학부생 취업委까지 結成 회원명부發刊-기별, 지역별 活成化기대

책이 아니라 대학원동창회에서 학부생의 취업을 一助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支會는 아마도 地大院同窓會가 처음 일 것이다.

취업추진위는 각지역별로 산하조직을 두고 작은 인력이 라도 학부생의 취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매학기마다 경주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同會는 회원들의 결속을 위해 각지역별, 기수별 위원의 要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회원명부를 발간했다.

이와함께 경주캠퍼스 지역

하는등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내일같이 찾아보는 회원상호간의 두터운 동문애와 비록 작은 출발이라도 먼 미래를 지향할 줄 아는 지혜, 소규모 모임에서 전체로 이어지는 결집력 등으로 地大院同窓會는 결코 막내 支會가 아니다. 크고 원대한 꿈으로 의욕에 찬 支會인 것이다.

플른 會의 發展에 장애가 전혀없는것은 아니다.

일반회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회비수납이나

스민(문화) 이도형(6기·오성종합중기)

▲감사=이도우(2기·대구지법 권수지원) 김찬성(3기·전문건설공제조합 포함지부)

▲사무국장=안정원(6기·울산연예협동 조합이사)

▲사무부=김정원(6기·현대전력(주)) 김경호(1기·동국대 학적과) 김용열(1기·보문개발(주) 전형준(1기·울산학원)

▲간사=김동열, 임상복(2기 동국대 학적과)

제21회 동국인의 밤을 축하합니다



지역 개발 대학원 총 동 창 회

고문 박재우 회장 이두철 부회장 공재홍 권순익 김무용
김기원 김경오 서상노 이도형
금병소 윤병환

佛敎思想史 출판회

李智冠 동문

▲李智冠 (69대인·前교무부장) 동문은 20일 하오 6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회갑기념은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李智冠 (69대인·前교무부장) 동문은 20일 하오 6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회갑기념은총 「한국불교문화사상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世界무역인賞 수상

趙重勳동문

▲趙重勳 (81대인·韓進그룹회장) 동문은 지난 10월29일 애크비치 힐튼호텔에서 LA세계무역센터가 수여하는 「영예의 세계무역인賞」을 수상했다.

趙重勳은 세계적 종합운송 그룹을 경영하며 한국의 수출산업에 세계무대로 확장시킨 공로로 톰 브래들리 LA동과 함께 한국인으로는 처음 수상자로 선정됐다.

11번째 個人展

崔相善동문

▲崔相善 (83대인·햇살선교회미술인회장) 동문은 11월 17일부터 11월28일까지 갤러리63에서 제11회 작품전을 가졌다.

國軍의 날 勳章받아

趙南豐동문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趙南豐 (90대인·1쿠사령관) 동문은 지난달 11월 제44회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경축식에서 보국훈장 통일장을 서훈했다.

사) = 11월7일 오후1시 올림픽 유스호텔1층에서 장녀결혼

▲朴濟相 (80대인·국회의원) = 11월28일 정오 육군회관에서 장남 朴根根 결혼

▲徐星義 (81대인) = 지난 6일 마포구 시교동 경남에식당 3층 팔도홀에서 3녀 洪玉양 결혼

▲羅得煥 (83대인·(주)두류사업본부장) = 10월15일 재향군인회관에서 딸 결혼

▲김동연 (87조경) = 11월20일 서울 압구정동 광라교회에서 결혼

▲尹경성 (87조경) = 지난 22일 오후 1시 서산 행복예식장에서 결혼

▲정장훈 (88조경) = 지난달 17일 오후 2시 서울 개봉동 한성교회에서 결혼

▲최현명 (89조경) = 지난달 3일 오후 2시 경주 문화예식장에서 결혼

▲정연도 (90조경) = 지난 14일 정오 교도 불상당에서 충민중앙교회

▲한승호 (91조경) = 지난달 4일 정오 대구 황제예식장에서 결혼

▲윤재호 (조경) = 지난달 17일 오후 2시 대구 중전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조 8규 (91조경) = 11월20일 오후2시 포항 새이씨예식장에서 결혼

세계를 누리며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보급해온 東國인이었다.

세기의 철권 무하마드 알리를 비롯한 유명인사를 제자로 두고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보급시켰던 李俊九 (51세대) 동문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전개하고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세기를 누리며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보급해온 東國인이었다.



지난 11일 입국, 삼육대-부산 경남대-대구구직소-대8군등을 돌며 정력적인 강연을 펼치고 있는 李俊九이 주장하는 사회개조론은 행복학(Happyalogy) 태권도보급에 37년간 몰두하다 지난83년 단손한 무술차



「늘 그렇게 생활해왔었는데 자랑할 것도 되지않고 또 자랑거리가 아닌데 뭐 소감도 특별한 것이 없고...」

지난 10월27일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저축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李澤水동문 (70대)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짧게 응수한다.

부친께서 운영하던 양곡도 매상(신당동 동광농산)을 물려받아 육식하지 않고 검소한 생활속에 수입의 70%를 무조건 저축해 온 李澤水은 固辭했지만 신한은행 상동지점의 적극 추천에 의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在學時 부친께서 주신 용돈을 직접 적금으로 불입하는 등 저축의 생활화가 몸에 배어 저축을 하지않고는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李澤水은 그렇다고 해서 후회를 얘기하는 구두쇠(?) 하지는 품격이 다르다. 학교법인 월곡학원의 감사로 경원도 흥성의 홍수생·고

에 매각하 마다 장학금을 기부하고 인근 노인정에도 남몰래 은정을 베푸는 돈살곳을 아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고교시절부터 우정을 나눈 친목회와 대학동창(경계과동기모인 東友會)모임도 서로 번갈아 가며 자택에서 모이는 것을 준수하며 말 그대로 검소한 삶을 실천한다. 아마도 그것이 저축의 비결일 듯.

말보다는 입문에 충실하고 생활을 검소하게한다는 신조를 지켜 온 李澤水의 생활·양식은 그대로 자신들에게까지 이어져 중2와 국공6년인 딸과 아들들 제각기 용돈을 아껴 저축을 하고있다고 슬쩍(?) 자랑이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李澤水은 교만하지 않고 검소한 것이 부친께서 행한 검소한 생활이 3대를 이어가

머리에 는 知識, 몸에는 힘

幸福學 전파하는 李俊九 동문

醫大부속 慶州병원 開院1週年

병상가동을 97% 지역의료기관 자리잡아

의과대 부속 경주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22일 오전11시 민병천총장, 오복원이사장을 비롯한 병원직원, 내외귀빈등 2백5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병원발전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들에 대한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등이 수여되었는데 최주호 우성건설 회장등 공사관계자 3명에게 감사패를, 송석구(62절학) 교수등 13명에게 공로패를, 배성한진료부장등 37명의 병원직원, 모교관계자, 건설회사 직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진료과목 21개 입원실 84실과 3백22병상의 시설규모인 경주병원은 지난1년간 △외래실입원 15만여명 △외래실입



▲사진은 개원1주년을 맞은 의대부속경주병원의 전경

원 4만여명 연인원 15만여명 △입원실 입원인 8천명 연인원 9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5개월간 병상가동율은 개설 2백90병상으로 97%를 보이는등 경북지역 최주의 대학부속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한의대 부속병원 확장

2층실습실 병실개조

경주캠퍼스 한방병원은 지난 20일 월말 내년초 완공을 예정으로 중공사비 1억2천만원 을 들여 2층 본초학 실습실을 병실로 개조하는 확장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이번 확장공사는 9월 중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병원 운영의 차질등을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같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공간부족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총24병상에서 50병상으로 병상규모를 늘리게 되어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실상부 대학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증축은 학교 수익사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는 94년도 개원 예정인 분당 한방병원이 최소

한 80병상이상 될 것을 예상하면, 경주한방병원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신규교수 60名 充員

醫學, 미충원學科 우선채용

모교 93년도 신규교수충원 계획이 지난 15일 재단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 서울캠퍼스 일반계열 21명, 경주 캠퍼스 의학계열 29명, 일반계열 10명등 모두 60명의 교수가 내년에 충원된다.

교무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93학년도 교수충원계획에 의하면 경주 한의과 8명의 예과과 21명등 의학계열 29명과 서울 21명, 경주 10명등 일반계열

研究年 교수 확성

모교교무처

모교 교무처는 오는 93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1년간 이루어질 연구년 해당교수와 연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김영철(회계학) = 경제적 자유론(HAYEK을 중심으로) △이준계(가정교육) = 현대한국농촌노인층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장한기(연극영화학) = 연극의 시원형태도 등이다.

경주캠퍼스는 △오영진(일어일본학) = 일본 근대시극의 한국관등이다.

피터스부르그대와 자매결연

불교철학분야학술교류 기대

모교는 내년 1월중으로 러시아의 피터스부르그대(11레닌그라드대)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번교류는 지난 9월중순경 피터스부르그대 철학·정치학 대학으로부터 모교 불교대학 교 자매결연을 맺자는 공식서한을 접수한 이후 양대학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피터스부르그대학내에는 극동·대승불교철학과 및 연구소가 신설돼 학술교류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에 모교 국제부 한 관계

자는 「결연협정이 최종확정되면, 기존의 본교 자매결연대학인 모스크바 상업대학, 세프린 예술대학과 더불어 본교의 대내외적 위상및 학술교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추진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모교 국제부는 내년 일반 용곡대 교환학생을 선발하기위해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필기시험과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교환학생 선발을 예년의 졸업생 중심의 선발과 달리 학부생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獎學金수혜자 2,880名

2학기 總 14억4036만원 지급

모교의 93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은 총수혜자 2천8백8명 이 모두 14억4천36만4천 원 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모교 장학과의 장학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교내장학금으로 일시성적우수장학 4백36명(특히, 92학년도 일시성적우수장학 수혜자는 2백83명으로 1억9천6백75만9천4백50원이 지급됨), 성적우수장학 8백68명, 학생회 간부장학 4백19명, 근로장학을 비롯한 특정

목적장학 9백14명등에 해당하는 총2천6백37명의 학생에게 12억6천9백44만6천원을 지급했다.

또한 교외장학금은 공공법원에서 지급하는 2백42만2천2백원, 장학재단 8천7백68원2백원, 동문회 1천1백97만5천1백원, 기타 1천4백71만5천4백원등이며 1백71명이 총 1억7천91만8천원의 장학혜택을 받았다.

올해 국고보조 7억8천만원

도서구입, 실험실습비로 총당

모교의 92년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재정지원 국고보조금은 7억8천2백35만1천원이 최종 책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지원된 3억2천17만1천원으로보다 4억6천2백1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통보한 재단등록문에 따르면 우선 국고보조금의 42.9%(3억3천5백만원) 일차 송금됐다. 이번엔 지원된 사립대학 국

고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구입비 = 1억4천6백91만원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 6억3천5백44만1천원 △시설확충 = 2억8천8백46만5천원 △산업인력양성(산업인력양성학교·첨단과학분야) = 3억4천6백97만6천원등이다.

한편 이번 모교에 책정된 국고보조금은 오는 12월말까지 각 단위별로 집행될 예정이다.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卍宇電子通信公社

TEL : 587-7611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 椿 煥 (74경연)

서초구 서초동 1628-26 삼청BD302호

會費 : 협조금 부탁 드립니다

경조화환·화분, 등·서양안 <도매가
적 판매 전문업체>한통화의 전화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시간에 정확
히 배달해 드립니다. • 전국 •

서울시 서초구서초동 1445
진로유용·꽃도매상가

TEL. (대) 521-3900
(야) 521-3838

서 일 화 원

김 인 택

개업인사 올립니다

재학중인 89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그동안 산동회계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同門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 記帳代理 · 稅務調整 · 會計監査
- 異議申請 · 審査請求 · 審判請求
- 讓渡, 贈與, 相續, 土地超過利得稅
- 法人轉換 · 企業診斷 · 經營諮問
- 事業安當性檢計 · Computer Consulting

朴秉浩稅務會計事務所

공인회계사 朴秉浩 배상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2-9 세화BD303호(송파세무서앞)

Tel : 402-3350 (代) fax : 402-3352

중외제약

감기요? 처음부터 확!



시작부터 복잡한 요즘감기 화콜로 확 잡으세요

생약과 비타민이 복합처방된 화콜

감기가 부쩍 많아지는 계절—
콧물이다 싶으면, 어느새 기침에 몸살까지...
요즘은 감기도 참 복잡하게 시작되죠.
그렇수록 감기는 걸렸다 싶을 때 확 잡아야 합니다.
양약성분에 길경, 감초 등의 생약성분, 비타민B, 제산제가
복합처방된 종합감기약 화콜!
시작부터 복잡한 요즘 감기—
화콜로 확 잡으세요.

어린이 감기에는
화콜시럽이 좋아요.



● 화콜시럽 :
90ml 3,300원

마약과의 만남은 인간과의 이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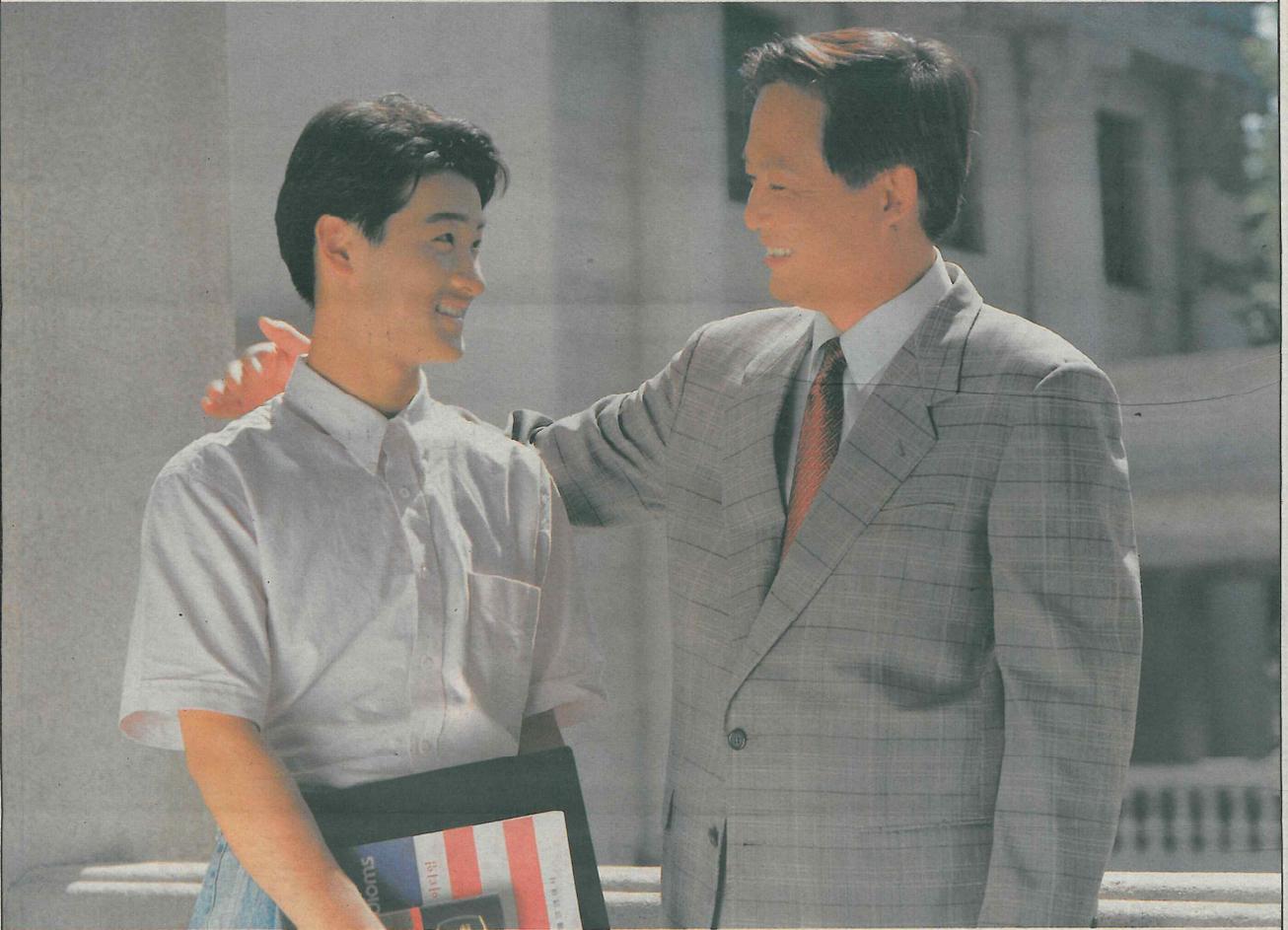
만드시 의사·약사에게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KGMP 적격업소

중외제약은 정부로부터 KGMP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되어 모든 의약품의 품질과 약효를 공인받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소수연구,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C&C신약연구소]를 설립, 세계적인 신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효능·효과
감기의 재증상 (오한, 발열, 두통, 콧물, 코막힘, 재채기, 기침, 가래, 인후통, 관절통, 근육통) 완화
- 표준소매가격 : 10립셀 2,200원



후배에겐 장학금을, 선배에겐 자긍심을
선배님의 비씨카드가
 후배를 돕는 장학카드가 됩니다.

카드를 많습시다.
 그러나 대학후배를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비씨 장학카드 단 하나입니다.
 꿈이 있는 신용사회는 공익사업부터!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비씨카드도
 장학카드를 발급합니다.
 비씨 장학카드를 여러분이 쓰시는 카드대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 여러분의 대학후배를 돕는
 공익카드입니다. 한번 쓸 때마다 후배를 도울 수 있는
 비씨 장학카드로 선배로서의 자부심을 간직하십시오.

■ 비씨 장학카드 발급요강

■ 발급대상

- 기존 비씨카드 회원이거나 신규발급을 원하시는 분

■ 신청방법

- 기존 비씨카드회원인 경우(교체발급대상)
- 비씨카드를 발급받으신 해당은행 영업점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신청내용 : 회원의 해당대학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 비씨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신규발급대상)
- 비씨카드 발행은행 영업점에 서면(비씨카드 입학신청서)으로 신청
- 서면작성시 신청서 하단에 해당대학명, 입학년도, 졸업년도를 함께 기재

■ 비씨 장학카드란?

비씨 장학카드는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카드이동액(신용구매대금)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회원님의 모교에 우수인재양성 및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달하는 공익카드입니다. 따라서 비씨 장학카드 회원께서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모교의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기존 비씨카드와 동일합니다.

※ 기타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씨카드 발행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씨카드